

# 푸틴 3기, 러시아의 경제통상 정책 및 한·러 경제관계 전망



# CONTENTS

## 목 차

요약 / 4

---

1. 2012년 러시아 대선 결과 분석 / 5

---

2. 푸틴의 경제 · 통상정책 방향 / 7

---

3. 한국의 對 러시아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/ 17

---

4. 주요 시사점 / 22

---

참고자료 / 24

- 푸틴의 2012년 대선 주요 공약(요약)
  - 푸틴의 경제공약 : Strong Economy, Strong Russia
-

## 요 약

### 1. 푸틴, 총 득표율 63.6%로 제6대 러시아 대통령 당선

- 지난 3월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후보로 출마, 총 득표율 63.6%로 3번째 당선에 성공
- 2008년 헌법 개정으로 인해 대통령의 임기는 총 6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201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연임 가능

### 2. 비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역 개발을 통한 러시아 산업 현대화가 핵심

- 약 45% 내외에 이르는 에너지 산업 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 중인 '2020 사회경제 발전전략'은 푸틴 집권 후에도 지속 전망
- 이 밖에도 국영기업 민영화, 지역 인프라 확대,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자국 산업 육성 및 지방발전 정책을 추진

### 3. 교역 및 투자는 현재의 확대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산업은 보호를 위한 제한조치 가능성 상존

- 2011년 200억 달러를 돌파한 對 러 교역은 푸틴 정부에서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며 소비재 수출 - 자원 수입이라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
- WTO 가입 및 푸틴의 투자유치 개선의지 등을 고려, 외국인 투자 환경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
- 다만, 자동차 산업 등 정부가 육성하는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특혜기준 강화 및 국내부품 의무 사용과 같은 보호 조치의 가능성도 있음

### 4. 대북관련(철도 사업 및 가스관 등) 사업에서 진전 기대

- 지역개발 사업 추진 및 2012 APEC을 계기로 러시아의 역할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북한 변수가 중요한 대형 협력 사업은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

## 1. 2012년 러시아 대선 결과 분석

- 2012년 3월 4일(현지시간)에 열린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후보로 출마한 ‘블라디미르 푸틴’이 당선
  - 당선자 푸틴의 득표율은 최종 63.6%인 것으로 집계됨
  - 푸틴은 현지시각 5월 7일부로 대통령에 취임하며, 2008년 헌법 개정으로 인해 연임이 가능한 6년의 임기를 시작함
  - 내각 총리로는 전임 대통령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
  - 지역별 득표에서 최대 득표지는 득표율 99.76%를 기록한 체첸지역이며 최소 득표지는 46.95%의 모스크바이며 전체적으로 모스크바를 제외한 82개 연방구성 행정단위에서 50% 이상의 표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
- 러시아 연합통신사 RIA Novostia의 발표자료<sup>1)</sup>에 따르면 전체 투표율은 65.3%로 발표
  - 이는 지난 2011년 12월 총선의 투표율(60.2%)보다는 높은 수치로 나타남
  - 각 지역별 투표율은 모스크바 49.12%, 상트페테르부르크 50.19%와 같이 대도시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매우 낮았는데 이는 도시 중산층들의 현 정치 체제와 푸틴에 대한 반감으로 해석할 수 있음

1) 출처: [http://www.ria.ru/vybor2012\\_hod\\_vyborov/20120304/584254067.html](http://www.ria.ru/vybor2012_hod_vyborov/20120304/584254067.html)

- 모스크바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시위 발생, 야권 및 서방 언론 등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
  - 선거 다음날인 3월 5일 야권 진영의 주도로 모스크바 시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위 발생, 반 푸틴 시위대 약 14,000~20,000명이며 이후로도 크고 작은 시위 발생
  - 정의러시아당 유력 인사인 알렉세인은 약 40일 가량 단식투쟁을 하였으며 전 대통령 고르바초프는 2007년 해체한 러시아사회민주당을 재창당 하려는 움직임을 보임
  - 유럽안보협력기구(OSCE)와 유럽평의회의원총회(PACE) 등 서방 세력은 러시아의 부정 선거의혹 제기하면서 추가조사 촉구
  - 타임(Time)지는 2012년 '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' 중 한 명으로 푸틴의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비판한 러시아 야권 정치운동가이자 유명 블로거인 알렉세이 나발니를 선정
- 푸틴은 일부 부정선거 의혹을 수용하면서 야권인사와 대중을 중심으로 유화책을 선택
  - 선거 이튿날인 3월 6일 푸틴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할 것이라며 부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전날 있었던 반대시위에서 연행한 700여명의 시위대를 석방
  - 일부 언론에 따르면, 대중 타협의 방편으로 일부 야권 인사를 내각의 중요 직책에 임명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음

## 2. 푸틴의 경제 · 통상정책 방향

### 가. 경제 · 통상관련 핵심 인사 및 성향

- 러시아 연방정부 행정부 지도부는 크게 보수 진영과 개혁 진영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
- 보수 진영의 대표 인사는 제1 부총리 빅토르 줍코프와 이고르 세친 부총리, 그리고 2011년 12월에 임명된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가 대표적인 인사들임
- 개혁 진영의 주요 인사로는 이고르 슈발로프 제1 부총리, 경제개발부 장관 엘비라 나비울리나, 중앙은행 총재 세르게이 이그나찌예프와 대통령 보좌관 아르카지 드보르코비치가 대표적인 인사임
- 이 중 경제 · 통상 분야를 책임질 러시아 연방 정부의 경제개발부, 재무부, 산업통상부 장관의 성향은 다음과 같음



경제개발부 장관  
엘비라 나비울리  
(Ms. Elvira Naibullina)

- 자유경제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봉자로 시장개혁 외에는 러시아 경제발전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

- 경제개발부 이전 민간기업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어 정부와 기업간 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는 현지 평가를 얻고 있음
- 러시아 경제에 시급한 정책으로 투자유치 확대와 내수 진작을 강조한 바 있으며, 수출입 정책에 있어서도 특별한 수입 제한 정책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한 바 있음
- 2011년 1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투자환경 개선, 민영화 사업 추진, 조세제도 개편, 전기와 주택공영사업의 개혁,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모델 선정 등을 우선 정책 추진 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힘
- 특히, 대선전 2012년 2월에는 에너지 섹터를 포함한 주요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필요한 상황이며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기한을 설정해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언급
- 이러한 주장은 전기산업 분야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부총리 이고르 세친 및 에너지자원부와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푸틴의 정책 방향이 민영화 확대인 만큼 앞으로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



재무부 장관  
안톤 실루야노프  
(Mr. Anton Siluyanov)

- 전임 장관인 알렉세이 쿠드린 경질 이후 2011년 9월부터 재무장관직을 수행중인 인물임



- 실루야노프의 재무장관직 임명에 대해 단지 대선전까지 임시적으로 장관직에 임명된 인물이라는 악평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졌음
- 러 정치공학센터 이고르 부닌 대표의 말에 따르면, 실루야노프 재무장관은 기존 명망이 높았던 전임 재무장관 쿠드린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
- 대부분의 정책 전문가들은 실루야노프의 전문가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아직 정치적인 영향력이 부족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 평함
- 실루야노프는 올 해 1월 19일 현금 결제를 줄여 탈세 예방과 지하 경제 조성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현금결제 수단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음



산업통상부 장관  
데니스 만투로프  
(Mr. Denis Manturov)

- 산업통상부 장관 발탁전 2003-2007년간 방위산업공사 회장, 2008.5월~2012.2.2일까지 산업통상부 차관을 수행
- 차관직 수행기간 동안 군수산업단지 산업 정책 입안과 생체공학, 화학, 제약분야 관련 정책을 주로 담당하였음



- 2012년 2월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자리에서 만투로프는 전임 장관인 빅토르 호리스첸코의 주요 정책을 그대로 이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정책은 이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

## 나. 주요 경제정책 방향

### □ 경제(산업) 현대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

- 러시아는 재정수입의 약 40~46%를 석유, 가스 부문에서 보전하는 에너지 의존형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2009년부터 ‘산업 현대화’ 계획을 추진 중인데 동 경제 현대화 계획의 지속 추진 예상

#### 【 러시아 경제 현대화를 위한 5대 핵심산업 】

- ① 에너지 효율화(신재생에너지 등)    ② 원자력 기술
- ③ 우주기술    ④ 의료기술(진단장비 및 의약품)
- ⑤ 전략정보기술(수퍼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정보기술)

- 이러한 경제현대화 계획은 푸틴이 총리 재임중 확정된 ‘러시아 2020 사회경제 발전전략’의 연장선상에 있음
- 주요 내용은 ‘5대 핵심 산업 육성’ 및 ‘스콜코보 혁신단지와 같은 연구 개발을 통한 전산업의 기술 혁신’으로서 타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 지속적인 성장 구조를 마련하고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음

### 【스콜코보 연구개발 단지 개요】

- 과학자 및 입주 기업을 위한 초현대식 테크노파크로 조성
- 중점 연구 분야는 5대 핵심산업(에너지, IT, 원자, 의료, 우주)임
- 위치 : 모스크바 외곽 순환도로(MKAD)로부터 서쪽으로 2km 지점
- 건설 : 2010년 설계, 2011년 착공, 종합단지 조성에 3-7년 소요 예상
- 정부 예산 지원 규모
  - 2010년 50억 루블(1억 7천만 달러)
  - 2011년 200억~300억 루블(6.9억~10억 달러)
  - 2015년까지 약 35억 달러
- 연구개발단지 투자 기업에 대해 10년간 부가가치세, 수익세, 재산세, 토지세, 임차료, 법인세 등 감면 및 해외우수인력 취업비자발급 등
  - 2011년 기준 노키아, Cisco, 보잉사,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입주를 결정
  - 지멘스, 애플, Intel, IBM, MIT, ENEL, HP 등이 입주 검토중

### □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 가속화

- 러 정부는 국영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러시아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을 진행
- 러시아 정부는 3,700여개의 국영기업과 3,950여개 회사의 정부 지분을 갖고 있으며 2009년부터 민영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2010년부터 일부 기업의 공개매각(IPO)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중
  - 2010년 국영기업 250개의 민영화를 완료하고, 건설(30), 농업(88), 화학(9), 기계제조(17)분야 기업의 지분 판매 추진
- 푸틴이 대선 직전 가진 외신기자와의 간담회(3.2)에서도 시장가격을 최대한 반영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, 러시아 정부의 민영화 추진은 계속될 전망

## &lt;주요 10대 민영화 기업 목록과 매각 지분율&gt;

| 기업명                       | 업종   | 지분매각률    | 비 고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Rosneft                   | 석유   | 25%-1주   | 주요 석유 기업   |
| RusHydro                  | 풍력발전 | 7.97%-1주 | 국영 수·풍력발전  |
| FGC                       | 전력   | 4.11%-1주 | 연방 전력 회사   |
| Sovcomflot                | 해운   | 50%-1주   | 러 최대 해운사   |
| Sberbank                  | 은행   | 7.58%-1주 | 러 최대 은행    |
| VTB bank                  | 은행   | 35.5%-1주 | 러 두 번째 은행  |
| United Grain Company      | 농업   | 100%     | 2013년까지 완료 |
| Rosagroleasing            | 농업금융 | 50%-1주   | 2013년까지 완료 |
| Russian Railways          | 철도   | 25%-1주   | 2013년까지 완료 |
| Russian Agricultural Bank | 은행   | 25%-1주   | 2015년까지 완료 |

※ 자료 : 러시아 경제개발부(2010.11월 기준)

## □ 지역경제 및 인프라 개발 추진 지속 추진

- 푸틴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 등에서 언급된 주요 사항중의 하나는 주거 부문 대폭 개선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해 공약
- 러시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8년 월드컵 등 대형 국제스포츠를 대비해 고속철도 건설, 도로망 확충, 공항 개보수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진행
- 이외에도 현재 러시아내에서는 2008년에 발표된 ‘2020 러시아 장기 사회-경제개발’ 계획을 바탕으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 지역개발, 인프라 개발 구축 사업이 있어 푸틴 집권 이후 이러한 지역경제 및 인프라 개발 추진을 더욱 확대되리라 예상
-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지금까지 발표한 사회-경제 주요 지역개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

### [주요 지역개발 프로그램]

- 2008-2012년 러시아 남부 발전 프로그램
- 2013년까지의 극동 및 바이칼 동부 지역 발전 프로그램
- 2014년까지의 칼리닌그라드 주 발전 프로그램
- 2007-2015년 쿠릴 열도(사할린 주) 발전 프로그램
- 2010-2016년 잉구셰티야 공화국 발전 프로그램

### □ 대대적인 세제 개편

- 푸틴은 대선전 다수의 현지매체를 통해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첨부의 대선 경제공약에서도 효율적인 세제 운용을 주장
- 푸틴은 대선 경제공약에서 ① 비에너지 산업군에 대한 세금 증세 제한 ② 고가의 부동산 및 사치품에 대한 사치세 부과 ③ 역외회사 및 탈세를 위한 다른 유형의 회사 철폐 ④ 납세 체계 간소화 등을 약속한 바 있음
- 푸틴은 집권 기간중 이러한 세제 개편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중산층 및 저소득층 만족도 제고하여 일반 국민의 고충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

### 다. 주요 통상정책 방향

#### □ 대외경제 개방화 속 CIS권 경제 블록화 가속화

- 1993년 6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T)에 가입을 신청한 이래 18년간 끌어왔던 WTO 가입이 2011년 12월에 승인되는 등 러시아의 대외경제 개방화는 분명한 사실임

- 동시에 구소련 연방국가(현 CIS국가)들을 자국 경제권 테두리에 묶으려는 유라시아 국가연합 창설을 2015년까지 추진중
  - 현지 언론(모스크바 타임즈 '11.12.28. 자 등)에 따르면, 러시아의 유라시아 연합 추진 목적은 서쪽으로는 유럽연합의 러시아로의 팽창과 동쪽으로는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단일통화 사용을 통해 러시아의 경제적·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것임
- 이에 2010년 1월부로 발효중인 삼국(러시아-벨라루스-카자흐스탄) 동맹을 추진했던 관세동맹위원회를 유라시아위원회로 변경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에 합의한 바 있음
  - 유라시아위원회의 러시아 대표단에 푸틴 측근중 한명이자 산업통상부 장관이었던 빅토르 크리스첸코(Victor Khristenko)를 포진

#### □ BRICS 국가 및 환태평양국가와의 협력 강화 기대

- 푸틴 총리는 최근 언론 기고(Moskovskie Novosti, 2012.2.)를 통해 기존 인도와의 우호 관계는 공고하게는 것은 물론, 중국 등 BRICS 국가와의 상호이익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
- 또한 아시아-태평양 국가(The Asian-Pacific Region)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2012년 APEC 개최 국가로서 국익 창출의 프레임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음
- 반면, 모스크바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있었던 2011년 12월 총선 부정선거 시위가 러시아를 혼란으로 빠트리기 위한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의도라고 비판함에 따라 당분간 미국과는 불편한 외교·통상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

## 라. 주요 산업정책 방향

### □ 자국 산업별 개별 발전전략 및 지원책 추가 확대

-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러시아 경제현대화 정책과는 별도로 개별 산업에 대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음
- 개별산업 발전 전략은 외부적인 요인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과 국내기업 육성 지원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
  - 외부적 요인으로는 WTO 가입이후 관세율 인하 및 외국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제도 개편 등이 있음
  - 국내기업 육성지원은 5대 핵심산업 이외에 기타 비에너지 부분 (철강, 자동차, 제조업) 지원을 통한 거대기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함

### <러 정부의 주요 산업별 발전 전략>

| 발전전략 및 정책         | 발표시기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2020 경공업 발전전략     | 2009년 9월 30일          |
| 2020년 자동차시장 발전전략  | 2010년 4월 23일          |
| 2020년 정보사회 국가프로그램 | 2010년 10월 4일          |
| 2020 제약 산업 발전전략   | 2010년 10월 23일         |
| 러시아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   | 2010년 11월 17일         |
| 2020 중공업 발전전략     | 2010년 12월             |
| 2020 의료산업 발전전략    | 2011년 2월              |
| 2030 러시아 사회경제발전전략 | 경제개발부 2011년 2월 대 정부제출 |

### □ 자국산업 보호조치 강화

- 에너지 산업 및 군수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의 경쟁력이 없는 러시아 경제는 WTO 가입 이후 경쟁력이 낙후된 자국 산업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음

- 이에 러시아 정부는 주재 외국기업에 자국산 사용 비율을 높이라는 요구 가능성이 향후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큼
- 또한 정부조달 시스템을 활용해 WTO 이후 가격경쟁력 상실이 예상되는 일부 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마련도 예상됨
- 일례로 러시아 정부는 법령 No 94-F3[정부나 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상품, 노동력, 서비스 공급 주문에 대한 정의]를 통해 공공 조달하는 품목 중 외국산 품목이 선정되더라도, 동 법령이 정한 품목에 속한 제품일 경우, '최종 선정 가격보다 실제 납품 가격은 15% 낮게 공급해야한다.'라는 법령을 2011년까지 시행한 적이 있었음
- 2012년 3월 러시아 주요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, 동 법령의 발효 기간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고 WTO 가입 이후 타격을 입을 축산, 사탕수수 등의 농산물, 농기계, 일부 가전품목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



### 3. 한국의 對 러시아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

#### 가. 한-러 교역동향

- 2011년도 대 러시아 교역은 전년 대비 19.8% 증가한 211.6억 달러를 기록
- 對 러시아 수출은 103.1억 달러(전년 대비 32.8%), 수입은 108.6억 달러(전년 대비 9.7%)를 기록하였으며, 무역수지는 5.5억 달러(전년 대비 △21.4억)적자를 보임
- 1990년 수교 이후 사상 최초로 교역액 200억 달러 및 수출 100억 달러 돌파하였으며 무역수지 적자폭은 전년 대비 감소를 보임
- 2011년 기준, 러시아는 한국의 11위 수출국('10년 12위)이며 13위 수입 대상국('10년 12위)임

#### < 한 · 러시아 연도별 교역 동향 >

(단위 : 억 달러, 전년 대비 %)

| 구 분  |     | '07년 | '08년 | '09년  | '10년  | '11년         |
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수 출  | 금액  | 80.9 | 97.5 | 41.9  | 77.6  | <b>103.1</b> |
|      | 증가율 | 56.2 | 20.5 | △57.0 | 85.0  | 32.8         |
| 수 입  | 금액  | 69.8 | 83.4 | 57.9  | 99.0  | <b>108.6</b> |
|      | 증가율 | 52.6 | 19.5 | △30.6 | 71.0  | 9.7          |
| 무역수지 |     | 11.1 | 14.1 | △15.9 | △21.4 | △5.5         |

자료 : 무역협회 무역통계

- 소비재 수출 및 원자재 수입의 보완적 교역 구조
- 對 러시아 수출에서는 자동차 관련 품목(부품 포함), 선박, 합성수지, 건설중장비 등이 전체 수출액의 56.5% 차지, 수입에서는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원자재 비중이 92.5% 차지함

## &lt; 2011년 한·러시아 품목별 교역 현황 &gt;

(단위 : 백만 달러, 전년 대비 %)

| 연번 | 수출     |        |       | 수입        |        |       |
|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   | 품목명    | 금액     | 증가율   | 품목명       | 금액     | 증가율   |
| 1  | 승용차    | 2,666  | 41.3  | 원유        | 3,662  | △7.8  |
| 2  | 자동차부품  | 1,354  | 77.1  | 유연탄       | 1,544  | 84.5  |
| 3  | 선박     | 609    | 0.3   | 천연가스      | 1,053  | 28.7  |
| 4  | 합성수지   | 584    | 30.1  | 나프타       | 923    | 9.1   |
| 5  | 화물자동차  | 497    | 171.6 | 알루미늄과 스크랩 | 773    | 71.5  |
| 6  | 건설중장비  | 461    | 145.2 | 고철        | 482    | 54.5  |
| 7  | 칼라TV   | 245    | △20.5 | 우라늄       | 275    | 58.9  |
| 8  | 무선전화기  | 155    | △39.4 | 명태        | 245    | 0.2   |
| 9  | 플라스틱제품 | 137    | 22.0  | 무연탄       | 237    | 199.1 |
| 10 | 타이어    | 116    | 63.2  | 합금철       | 179    | 7.0   |
|    | 총계     | 10,306 | 32.8  | 총계        | 10,855 | 9.7   |

자료 : 무역협회 무역통계

## 나. 한-러 경제통상 관련 핵심이슈 및 전망

- 정치적으로는 남·북 관계에 있어 수평적인 관계 설정이 예상되나 경제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푸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와의 유대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
- 한·러 경제협력도 기존 정책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러시아에서도 관심이 많은 TSR-TKR 연결사업과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연결 및 전력 추진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

## 1) 철도(TKR-TSR 연결사업)

- 1999~2001년 기간 동안 한·북·러 삼자간 정상 회담 이후 남북한 종단철도(TKR)와 시베리아 횡단철도(TSR) 연결하는 사업에 대해 검토되었으나 북한의 대외정책 강경 노선으로 정체 상태
- 2011년 김정일 인민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시,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TKS과 TSR 연결 사업에 대해 진행하기를 희망하였고 현재 TKR-TSR 연결사업의 전초 사업인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간 철로보수공사(52km 구간)가 마무리되어 2011년 10월 시범운행을 실시하는 등, 러시아에서는 TSR 노선을 활성화시키는데 관심이 높음
- 이에 TKR-TSR 연결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
  - 유럽과 동북아시아 지역 간 물류의 중심 루트를 만들고 개발이 소외된 극동지역을 개발하려는 러시아의 이해가 맞물려 러시아 측에서는 TKR-TSR 연결 사업에 적극적임

## 2) 가스관

- 2009년 지식경제부, 가스공사, 석유공사는 러시아 에너지부와 제 10차 한·러 자원협력위원회를 열어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 사업 참여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
  - 주요 논의 주제는 러시아의 자원 개발 프로젝트인 동부지역 가스전 개발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방안이었음
  - 한편, 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은 북한을 경유한 PNG 방식의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북한 변수로 지금까지 담보 상태였음

**[참고]**

.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러시아는 총 280억 달러를 투입해 낙후한 동부지역 가스전을 개발, 러시아 전체를 하나의 가스 배관으로 연결하는 동부가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

. 우선 2012년까지 사할린-하바로브스크-블라디보스토크간 가스배관을 건설하고 2015년에는 사하공화국의 야쿠츠크 - 하라로브스크간 자체 배관망 건설 사업을 완공할 예정

- 2011년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회담 때 북한을 경유한 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해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
-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이 당선 이후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한 진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며 푸틴 체제 하에서도 동 사업의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- 한편으로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잉여 전력을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가스관과 비슷한 노선으로 송전선을 부설하는 사업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

#### 다. 현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주요 산업 및 투자 영향

- 푸틴의 대선 승리는 대내외적으로 일찍부터 예견되었고 현 메드베데프 정권에서도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서 모든 산업 정책을 결정하였기에 이번 대선 결과에 따른 산업별 영향은 없을 거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
-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(S&P)는 푸틴이 재집권 할 경우, 러시아가 산업구조 개혁을 멈추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에 의존했던 과거 경제구조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분석

- 따라서 푸틴의 집권은 각 국별 경제통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보다는 자원 교역에 의존하는 러시아의 경제 체질을 푸틴이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
- 한편, 대선전 푸틴이 내건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드는 선심성 공약은 결국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 역시 큼
- 2011년 기준, 러시아의 국가부채비율은 2011년 현재 GDP의 8.7%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푸틴의 선심성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

#### <자동차산업 법령 투자특혜관련 주요내용>

| 구 분      |         | 신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    | 신규공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존공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혜       | 관세      | 0-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-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기간      | 8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DKD/SKD | 36개월 허용<br>(연간 생산량의 5% 이하)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양산전 DKD 허용,<br>18-30개월 CKD<br>전환조건     |
| 의무<br>사항 | 생산능력    | 30만대<br>(48개월이내)                      | 35만대<br>(36개월이내)                 | 2.5만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현지화율    | 30%/4년이내<br>40%/5년이내<br>60%/6년이내      | 35%/1년이내<br>매년 0.5%씩<br>60%/6년이내 | 10%/24개월이내<br>20%/42개월이내<br>30%/54개월이내 |
|          | 파워트레인   | 생산차종 30% 현지생산 엔진 및<br>T/M 장착 (48개월이내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프레스설비   | 48개월이내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R&D연구소  | 48개월이내 설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자료 : 러시아 통상산업부(2010년 4월 23일, No. 319호), 2011년 2월부터 발효

## 4. 주요 시사점

- 푸틴 3기의 경제·통상 정책은 에너지 산업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
  - 주요 산업정책으로는 ① 5대 핵심 산업 육성 ② 자국 산업 보호 ③ 국영기업 민영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
  - 푸틴 정부의 경제·통상분야 주요 관료들이 신자유주의 성향이 강한만큼 민간기업 통제 완화 등과 같은 조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
- 한러 교역은 현재의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,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러시아 연방 정부의 일부 제한 조치는 강화될 우려가 있음
  - 자동차 산업 경우, 특혜 조건을 강화하고 자국생산 부품 의무사용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통과('11.2.) 되었으며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가격 제한 품목을 확대 하려는 동향이 있음
  - 대 러시아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가전, 석유화학 제품 생산 기업은 러시아산 부품 의무사용 및 수출입 제한과 같은 제한 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
- 외국인 직접 투자는 러시아의 WTO 가입 영향 및 푸틴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의지를 고려했을 때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
  - 푸틴은 총리시절부터 투자 환경 개선을 주장하였으며 대선 전인 지난 2월 통합러시아당 인사 및 정치전문가들과의 가졌던 자리에서 “120위에 있는 우리 러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을 20 위권으로 상승시켜야 한다.”라고 강조한 바 있음

- 러시아의 WTO 가입이 의회승인을 거쳐 2012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투자 규제완화 및 투명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
- 철도 및 가스관 등, 러시아의 극동·시베리아 사업은 푸틴의 지역 개발 의지 및 APEC 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
  - 철도 프로젝트의 경우, 나진-하산 등 일부구간이 시험운행을 하였으며 가스관 역시 낙후된 극동지역개발 차원에서 중점 추진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음
  - 또한, 2012년 APEC(9월, 블라디보스톡) 회의를 통해 향후 한-북-러 간 활발할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/끝/

## # 참고자료 1 : 푸틴의 2012년 대선 주요 공약(요약)

| 기본공약                | 세부공약                   | 상세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“우리의 가치”            | 러시아 민족정신 계승과 통합        | 문화, 전통 종교 발전,<br>건전화 대중문화 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개인 삶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      | 개인 권리보호 및 교육, 공공의료, 주택 확충 등 사회지원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지방 개발 및<br>효율적인 자치지방행정 | 지역개발 및 재정확충, 공공시설, 용수공급, 사회 기반시설(쓰레기 처리 및 도로 등) 확충                  |
| “풍요로운 삶”            | 급여 및 연금 수준 개선          | 공무원 급여 인상, 주택 프로그램 개발, 연금 수준 향상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가족 복지                  |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다각적 지원, 향후 3년 내 보육시설 확충, 젊은 부부를 위한 주택지원, 출산 여성 직업교육 지원 |
|                     | 주거서비스 부문 대폭 개선         | 요금 합리화, 기관 업무 강화, 주택 수리, 개인투자 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교육                     | 교육의 질적 개선, 시험제도 개선, 보다 전문적인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국민 건강                  | 종합검진, 명확한 의료기준, 현대적 장비와 숙련 의료진 확대, 의약품 직접 생산을 접근성 증대, 환경보호, 운동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 생활수준 향상            | 사회시설 및 교육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‘강한 경제<br>- 강한 러시아’ | 산업 현대화                 | <참고자료 2 참조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우선순위로의 혁신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제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새로운 농촌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인프라 개발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민주권통치              | 관료집단 개혁                | 행정투명성 증대, 지역 자치장 직선제, 부패 척결, 법질서 확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국민주권                   | 민주주의 확립, 입법과정에서의 소통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강국 러시아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| “유라시아연합(Euro-Asian Union)” 설립, 이민정책 개선, 군(軍) 현대화                    |



## # 참고자료 2 : 푸틴 경제공약 : Strong Economy, Strong Russia

| 경제공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공약 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'Strong Economy<br>-<br>Strong Russia' | 산업 현대화       | 10년 이내 노동 생산성 2배로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20년 이내 일자리 2500만개 창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GDP의 25%까지 대대적 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전력, 산업, 농업, 통신, IT, 바이오 등의 산업 육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행정 장벽 제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실물경기로의 투자 촉진<br>(이자율 인하 및 민간의 장기투자 자금 육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의 자국 생산업체 진입 활성화<br>(석유, 가스, 화학재료, 철금속, 목재 및 기계류<br>기타 첨단기술 분야의 수출 활성화 또는 부가가치 창출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2015년까지 정부 예산 흑자 전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에너지 절약 기술 도입 및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우선순위로의 혁신    | 대대적인 기술혁신과 첨단기술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202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대학 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과학 분야 지출 확대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기술혁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스콜코보 및 기타 첨단 기술 단지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제 | 비에너지 산업군에 대한 세금 증세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부동산, 사치품에 대한 더 높은 과세 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역외회사 및 탈세를 위한 다른 유형의 회사 철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납세 체계 간소화<br>(전자세금계산서 도입, 세무보고 절차 간소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새로운 농촌       | 도로확충, 수도 및 전력 공급망 개선,<br>현대식 학교, 병원 및 문화시설 보급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식품, 농산물 도매 센터 및 물류 시스템 확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선진형 농산품 직거래 판매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선진형 위험 보장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창업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프라 개발       | 대형 경제 중심지 개발을 통한 토지 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시베리아 및 극동지방에 광대역 교통 인프라 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대형도시 연결 고속철도 건설,<br>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항공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지방도시 및 농촌의 도로 보수 및 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안전하고 편한 대중교통 구축 및 교통 시스템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자료 : 푸틴 2012년 대선 공약 사이트(<http://www.putin2012.ru/program/3>)

## 2012년 KOTRA 발간자료 목록

### ☐ GMR (Global Market Report)

| 번 호    | 제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간일자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2-001 | 2012년 2분기 KOTRA-SERI 수출선행지수     | 2012.4 |
| 12-002 | 가속화되는 일본기업의 인도진출과 대응            | 2012.4 |
| 12-003 | 일본의 新고령세대, 새로운 시장을 연다           | 2012.4 |
| 12-004 | 포스트 카다피 리비아 파워 엘리트 100인         | 2012.4 |
| 12-005 | 푸틴 3기 러시아의 경제통상 정책 및 한러 경제관계 전망 | 2012.4 |

### ☐ GBR (Global Business Report)

| 번 호    | 제 목                      | 발간일자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2-001 | 유럽 대형 유통망 조사             | 2012.1 |
| 12-002 |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시장구조 변화와 유망시장 | 2012.1 |

### ☐ GIR (Global Issue Report)

| 번 호    | 제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간일자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2-001 | 유럽한류와 국가브랜드 조사 보고서 - 이탈리아, 헝가리, 독일, 프랑스, 영국 등 5개국 대학생들 중심으로- | 2012.2 |

### ☐ KEB (KOTRA Executive Brief)

| 번 호    | 제 목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간일자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2-001 | 2012년 1분기 KOTRA-SERI 수출선행지수 | 2012.2 |
| 12-002 | 대이란 추가제재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방안     | 2012.2 |
| 12-004 | 미얀마의 민주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    | 2012.3 |

## □ KOTRA자료

| 번 호    | 제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간일자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2-001 | 러시아연방 경제산업개발 프로그램 - 2006 ~2015 러연방 체육 및 스포츠 발전  | 2012.1 |
| 12-002 | 해외 주요국 글로벌 인재 동향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1 |
| 12-003 | 2012 글로벌 마켓 동향 및 진출 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1 |
| 12-004 |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1 |
| 12-005 | 한국 투자가이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1 |
| 12-006 | Doing Business in Korea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1 |
| 12-007 | 韓國投資指南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1 |
| 12-008 | 韓國投資ガイ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1 |
| 12-009 | FDI 및 초국적기업 운영 통계에 대한 UNCTAD 훈련 교본              | 2012.2 |
| 12-010 | 2011 외국인투자유치부즈만 연차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3 |
| 12-011 |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1 | 2012.3 |
| 12-012 | 韓-美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대응전략                | 2012.3 |
| 12-013 | 해외전력시장 진출 가이드 (2012년 개정증보판)                     | 2012.4 |
| 12-014 | 중국 화상경제권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3 |
| 12-015 |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효과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4 |

## □ 설명회자료

| 번 호    | 제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간일자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2-001 | 2012 KOTRA 해외공공조달포럼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1 |
| 12-002 | 2012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1 |
| 12-003 | 2012년 중국-중남미 포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1 |
| 12-004 | 인도-인도네시아 포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1 |
| 12-005 | 2012 러시아 포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1 |
| 12-006 | 인도 전력인프라 네트워크 포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2 |
| 12-007 | 한-미 FTA시대, 중소기업 새로운 길 열렸다                     | 2012.2 |
| 12-008 | 위기 속의 유럽시장, 그래도 기회는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2 |
| 12-009 | 떠오르는 희망, 신흥시장을 선점하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2 |
| 12-010 | 한-CIS 비즈니스 포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3 |
| 12-011 | 한-미 FTA 활용, 美 보안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                  | 2012.3 |
| 12-012 | 2012 글로벌 에너지 플라자 연계 세미나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5 |
| 12-013 | Korea-Myanmar Economic Cooperation Forum 2012 | 2012.4 |
| 12-014 | 한국투자환경설명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4 |
| 12-015 | [한중수교 20주년]한중 동반성장 고위포럼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4 |
| 12-016 | 2012 글로벌 공항/철도기자재 조달플라자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4 |

Global Market Report 12-005

## 푸틴 3기, 러시아의 경제통상 정책 및 한·러 경제관계 전망

발 행 인 | 오 영 호  
발 행 처 | KOTRA  
발 행 일 | 2012년 4월  
주 소 |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 
(우 137-749)  
전 화 | 02) 3460-7114(대표)  
홈페이지 | [www.kotra.or.kr](http://www.kotra.or.kr)

---

Copyright © 2012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

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 
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.